

# 제8회 이사회 의사록

2007. 7. 18(수) 16:30

한 국 관 광 공 사

## 2007년도 제 8회 이사회 의사록

1. 일 시 : 2007. 7. 18(수) 16:30

2. 장 소 : 16층 회의실

3. 안 건 : 총 3건

(심의안건)

◎ 사장 경영계약(안) : 원안의결

(보고안건)

◎ 2006년 정부경영평가결과 보고 : 원안접수

◎ 인천 및 김해공항면세점 현황 보고 : 원안접수

4. 재적 이사 : 8명

5. 출석 이사 : 7명

6. 참 석 자

의 장 강 광 호	이 사 김 지 상
-----------	-----------

이 사 최 갑 열	이 사 신 진 기
-----------	-----------

이 사 홍 주 민	이 사 도 영 심
-----------	-----------

이 사 김 향 숙
-----------

7. 의 사 록 : 붙임

의 장 : 지금부터 이사회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2007년도 제8회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타봉)

의 장 : 먼저 지난 제7회 이사회 안건인 KTC 사업 종료 및 제휴사 참여 보고, 화원관광단지, 내장산리조트 추진현황 및 토지분양 계획(안) 보고, 공사 지방이전 계획수립 추진현황 보고, 금강산면세점 개점식 및 내금강 시범관광 결과 보고, 비보이 세계대회(R-16 Korea Sparkling, Seoul) 개최 결과 보고, 중동 로드쇼 개최 및 방콕 코리아플라자 개소 보고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보고하다)

의 장 : 방금 마친 제7회 이사회 결과 보고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장 : (이사들 이견 없음을 확인함)

의 장 : 이견이 없으시면 본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총 3건이며, 이중 심의안건은 사장 경영계약(안) 1건이고, 보고안건은 2006 정부경영평가 결과 보고, 인천 및 김해공항면세점 현황 보고 등 2건입니다.

의 장 : 그럼 먼저 사장 경영계약(안)에 대해 평가분석팀장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분석팀장 제안 설명하다)

의 장 : 방금 제안 설명 드린 사장 경영계약(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심 이사 : 초판에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한 혁신경영 관리 강화’ 부분은 추가로 오늘 보내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평가분석팀장 : 문화관광부에서 그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지난 월요일에 해왔기 때문에 이사님들께는 별도로 보내드렸습니다

도영심 이사 : 아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 우리 비상임이사들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장 경영계약(안)에 대해 검토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절차상 참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한 혁신경영 관리’ 부분은 너무나 필수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왜 초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공사는 그 부분에 대해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까?

평가분석팀장 : 원래는 사장 경영계약(안) 목표 내용 중에 기관 성과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책임경영 파트에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별도로 항목을 마련하지 않았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그 항목을 별도로 만들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도영심 이사 : 네 그렇군요. 추가로 자료를 받고 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김지상 이사 : 오늘 이사회에서 사장 경영계약(안)이 확정되면 향후 임원추천위원회에 회부되고, 그다음 장관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후속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변경사항에 대해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서 의결해야 되는것입니까?

평가분석팀장 : 공공기관운영법의 관련조항에 의하면 안전에 대한 이사회 의결 이후 절차에서의 변경사항은 이사회가 재심의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단,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해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 보고 절차는 필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지상 이사 : 사후 보고로 같음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추인과 같은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경영계약을 체결한 이후 어떤 사유로 인하든지 사장 직위가 다시 공석이 될 경우에 그 후임사와 현 경영계약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현 경영계약이 후임사장에게 그대로 승계가 됩니까? 아니면 후임사장과는 새로운 경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까?

평가분석팀장 : 규정상 새로운 경영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잔여임기의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관의 경영목표는 기관장의 교체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리고 경영목표 또한 경

영환경 변화에 따라 중대한 사항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사장과 장관의 협의 하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  
경할 수 있습니다.

김지상 이사 :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공공기관운영법 규정들을 보면 공사 경영과  
관련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 문화관광부장관이나 기  
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제 생각에 그러한 사항들은 공사의 자율경영에 상  
당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율경  
영이 더 확대되어야 하는데 법규는 거기에 역행하는 듯  
한 생각이 듭니다. 공사 입장에서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자율경영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분석팀장 : 공공기관운영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소 불완전한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시행  
하면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향숙 이사 : 전반적으로 보니, 현재 공사에서 새로이 시작한 한  
국관광브랜드 정착이라든지 기존 추진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경영계약(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안정지향  
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 신임 사장은 계약(안)에 따라서 소극적  
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겠다는 약간의 우려감  
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사를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한국관광산업과 공사 발전을 위한 과감하  
고 적극적인 사업들을 시도하기에는 제약이 따르지 않

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혹시 신임사장 직위에 지원하신 분들은 이러한 경영계약(안)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의 장 : 사장 경영계약에는 신임사장의 비전이나 경영철학이 가중치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장관과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가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영심 이사 : 보고 사항 중 인천 및 김해공항면세점 현황보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보고 내용에 보면 향후 공사가 면세점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수익계약은 어렵고, 공개입찰에 참가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는데, 입찰에 참가해서 경쟁사들을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설사 영업권을 얻는다 해도 영업 손실이 거의 확실하게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항이야말로 신임사장 경영계약(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

김지상 이사 : 도이사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이사회에 별도의 보고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므로 안건 보고시 토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의 장 : 도이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원래 경영계약(안)에 포괄적으로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도영심 이사 :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빼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줄 것을 제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 장 : 예 그렇습니다.

김지상 이사 : 저도 사장 경영계약(안)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계약(안)을 보면 경영목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매년 경영목표로 설정되는 사항들이 너무 추상적인 문구들의 나열에 그치고 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영계약에 의해 사장이 달성해야 하는 계약사항들인 만큼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계량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 장 : 그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면세점 부분은 현재 상황이 매우 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목표를 계량화 하는 것이 다소 무리인 것 같습니다. 곧 입찰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월에 차기년도 경영목표 설정 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사장으로 오시든지 면세점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김지상 이사 : 알겠습니다.

신진기 이사 : 오늘 이사회에서는 사장경영계약(안)을 심의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임원추천위원회,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일련의 협의과정에서 다소 변경의 여지가 남아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본(안)을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심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결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절대적인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 장 : 그러면 사장경영계약(안)에 대한 토의는 이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 (각 이사들 더 이상 의견 없음을 확인함)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사장경영계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타봉)

의 장 : 다음은 2006년도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역시 평가 분석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가분석팀장 보고하다)

의 장 : 방금 마친 2006년도 정부경영평가 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기 이사 : 자료에 보면 관광공사가 비록 기관평가 순위는 3위이고, 사장평가 순위는 2위이지만 그 점수차를 보면 매우 근소한 차이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거의 1위나 다름없는 3위와 2위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 장 : 감사합니다. 이사님들의 이사회 활동도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님들께서도 많이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지상 이사 : 결과가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볼 때 전임 사장님의 강력한 리더쉽과 거기에 잘 따라준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물론, 이 경험으로 인해 우리도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도 공사 입장에서는 매우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오시는 사장님과도 좋은 작품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상 이사 : 그리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해외 진흥활동을 통한 외래객 유치실적은 전년도에는 지표가 없었나요?

평가분석팀장 : 이전 년도까지는 전체 방한객 수를 지표로 설정했는데 작년부터 공사 해외지사 모객활동을 통해 유치한 방한객수만을 지표로 설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영심 이사 : 물론 경영평가 지표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공사가 올해 방한객 유치 목표를 연초에 700만명으로 정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7월인데 목표달성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홍주민 이사 : 약 90퍼센트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영심 이사 : 그렇다면 약 630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홍주민 이사 : 작년에는 615만명이었습니다.

도영심 이사 : 작년에 615만명이었고 올해는 630만명 또는 그 정도 수준이 되겠군요. 그렇다면 연초 목표치와는 70만명 정도 격차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정부경영평가에서는 감점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홍주민 이사 : 정부경영평가 지표에 전체 방한객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가지표가 2006년부터는 공사 해외지사 활동을 통해 유치한 방한객 수만 따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도영심 이사 :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연초 공사가 7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경영평가 지표가 아니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 자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주민 이사 : 그래서 특별대책을 세우고 6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영심 이사 : 그 특별대책이란 무엇입니까?

홍주민 이사 : 예를 들면 언론인 초청사업 확대 실시라든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제주도, 10월에 개최될 부산영화제 등을 활용한 모객활동 및 광고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영심 이사 : 언론인 초청사업은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먼저 가격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왔다 가면서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기보다는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관광객 유치 및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 업체와 공사가 뜻을 모아 정말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업체는 업체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각자의 목소리만 내다가 끝나고 말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류도 좋고 세계자연유산도 좋고 국제영화제도 좋지만 먼저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접근해서는 별 효과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호텔 인건비 인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허용 등과 같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서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공사입니다.

의 장 : 예 이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총리실에서도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TF팀을 운영하는 등 관광산업 진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영심 이사 : 관계자 회의는 언제 했습니까?

의 장 : 지난 6월26일이었습니다.

도영심 이사 : 어떤 분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의 장 : 1차 회의에는 저하고, 업계대표 한분, 교수 한분, 문화  
관광정책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TF  
팀이 구성되고 첫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도영심 이사 : 회의 주제는 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홍주민 이사 : 관광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62개 과제 중 주요사  
항 몇 가지를 선별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도영심 이사 : 이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격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동안 관광호텔업계의 숙원사항이었던 전기세 산업요  
율적용, 그리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채  
용문제 등과 같은 가격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보다 근본  
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사항들을 공사가 먼저 시작하면  
그 뒤에는 언론도 정부도 힘을 실어주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 작년에 총리 주재로 관광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62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62개 과제 안에 외국  
인 근로자 고용 문제, 전기세 산업요금 적용 문제가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항들과 관련  
된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영심 이사 : 법규 개정은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니까?

의 장 : 그 62개 과제 중에서 부가세 영세율이나 전기세 산업  
요금 적용문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지  
방의 토지세 인하 등은 지자체의 제도이기 때문에 지자

체의 조례를 바꾸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추가로 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일이 이번 TF팀의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 장 : (각 이사 더 이상 의견 없음을 확인함)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6년도 정부경영평가 결과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타봉)

의 장 : 다음은 인천 및 김해공항면세점 현황에 대해 사업단지원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단지원팀장 보고하다)

의 장 : 방금 마친 인천 및 김해공항면세점 현황 보고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심 이사 : 인천공항면세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보일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우리 이사들에게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면세점 운영 시 적자는 볼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공사에서 주장하는 고용안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면세점 운영과 관련해서 공사와 다른 사기업의 명분은 엄연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기업들과 아이템을 가지고 경쟁할 필요 없이 공사는 확실하게 공사만의 차별화된 아이템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

향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홍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 보세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매장 면적이나 취급 아이템을 가지고 사기업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꾸면 언론이나 정부도 반드시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사가 고민하고 있는 고용문제도 함께 해결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임 사장님이 오시면 그런 방향으로 경영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이사님들이 보좌를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이사 : 보고 내용 중 김해공항면세점의 중요성에서 보면 면세사업단 체화 재고상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라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사업단지원팀장 : 예를 들면 인천공항면세점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최소보장액이 있고 매출이 어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을 영업요율이라고 하는데 그 영업요율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계절을 타는 상품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 할인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할인 자체와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 임대료로 인하여 이중으로 지출을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김해공항은 매장 임대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생긴 재고품목을 김해공항에서 해소해 줄 경우 이중 지출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김향숙 이사 : 그런 기능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을 만큼 김해

공항 이용객 수가 많습니까?

사업단지원팀장 : 외국인 고객들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의 경우 출국 시 김해공항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진기 이사 : 이전에 도이사님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크게 보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 급한 것은 인천공항면세점 입찰 결과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사의 매장 임대료 산정 방식에 대해 원칙만 정하고 아직 구체적인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것이 맞지요? 그런데 원칙이 다른 업체 제시금액의 평균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다른 업체의 매장 수나 면적 그리고 위치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다른 업체들 제시 금액의 평균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사업단지원팀장 : 공항청사 동쪽은 대한항공, 서쪽은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중앙은 외국항공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 면세점의 위치는 서쪽에 있는데 대한항공이 이용하는 동쪽 보다는 매출이 작지만 외국항공사들이 이용하는 중앙지역 보다는 매출이 크다는 가정 하에 임대료 산정 기준이 정해진 것입니다

신진기 이사 : 물론 원칙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공사는 한국을 홍보하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한 공익적인 명분이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공항 측과도 적극적인 협의를 시도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상 이사 : 그동안 공사 재원조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던 면세



사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국고지원도 물론 받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직접 벌어서 쓰는 것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겠지요. 제가 보기에 갈수록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임직원이 힘을 합쳐서 타개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리조트 개발·운영 같은 신규 수익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공사가 지방으로 이전하고 거기다가 지방 관광공사들이 계속 생기게 되면 공사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 공사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의 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사님들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 (각 이사들 더 이상 의견 없음을 확인함)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인천 및 김해공상면세점 현황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후 임차료 협상 등 정부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이사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의사봉 타봉)

의 장 : 그러면 이상으로 안건 심의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8회 이사회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봉 타봉)

공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 10조 제 2항에 의거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 날인하다.

2007. 7. 18.

이 사 강 광 호

이 사 김 지 상

이 사 최 갑 열

이 사 신 진 기

이 사 홍 주 민

이 사 도 영 심

이 사 김 향 숙